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배우자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박 지 선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초빙교수)
(lundy@hanmail.net)



정 영 조
(우송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원)
(yung1617@hanmail.net)



류 한 수*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조교수)
(yuhansu@wsu.ac.kr)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결혼한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배우자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으로 한국 2개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885명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자료는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척도,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건강관련QOL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배우자 스트레스, QOL의 관련성을 인과관계모형으로 구축한 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모형의 적합도는 $\chi^2(df)=691.162(365)$, CFI=0.935, RMSEA=0.060이었고, 통계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커미트먼트는 배우자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규범적 커미트먼트와 지속적 커미트먼트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셋째, 배우자 스트레스는 QOL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스트레스 관리 및 배우자와의 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배우자 스트레스, 삶의 질, 국제 결혼한 한국인 남편, 다문화가족

* 교신저자, yuhansu@wsu.ac.kr

I. 서론

최근 10여년 사이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형태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다문화가족의 급증이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 비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함께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얹힌 가운데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부간 권력 불균형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에 한국정부에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법률 제정과 예산확보 등의 성과를 내 왔다(尹靖水 외 2013). 이를테면 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마련되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직까지는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은 부부갈등이나 폭력 및 학대, 나아가 가족해체에 이르는 등 부정적인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변화순 외 2008). 이와 같은 사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대안을 요구받고 있다.

삶의 질이란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물질적, 정서적인 생활환경을 비롯하여 주관적 만족감까지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오승환 외 2006; 유은광 외 2012).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김혜자 2008; 박윤지 외 2012; 유은광 외 2012; 김연희 외 2014). 그러나 연구대상이 대부분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과 그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제결혼을 선택한 한국인 남성의 삶의 질은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은 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다. 앞으로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족 형성과정에 있어서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편이 겪는 생활문제는 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인 남편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학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친밀한 관계를 뜻한다(이효재 1984). 자라온 배경과 인성적인 특성이 다른 두 사람이 상호합의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화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이경희 1995). 동일한 국적과 문화권을 가진 많은 부부들은 상호간 생활에 대한 이해나 의사소통을 통해 그 차이를 좁혀가거나 극복하면서 부부관계와 가족관계를 지속시켜 간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가족관계형성의 과정부터가 달라 문화에 대한 이해나 소통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는 경로를 살펴보면,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비율이 높는데 이 경우 대부분 일주일을 넘지 않는 짧은 시간동안 맞선, 결혼식, 합방 등 일련의 결혼과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부간의 깊이 있는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족이 형성된다. 또한 각기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만나 다른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자를 비롯하여 다른 가족구성원 및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태영 외 2010; 이은하 외 2012).

라자루스 외(Lazarus et al.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에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선행조건으로 개인의 가치관 이를테면, 커미트먼트와 신념과 같은 개인적 요인을 들면서 이후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와 평가가 대처방향과 신체적 및 정신적 반응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정신적 건강의 관계를 다룬 박인아 외(2012)의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들은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그들의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의 대만인 남편을 대상으로 한 윤정수 외(尹靖水 외 2011)의 연구를 통해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정신적 건강 또는 우울의 측면에서 스트레스 반응 상황을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정신적인 삶의 질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스트레스인지이론에서는 스트레스 발생의 선행조건으로서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커미트먼트와 스트레스의 관련성에 대해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자루스 외(Lazarus et al.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와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를 원인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 관련성을 살피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인지이론

스트레스인지이론은 1984년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 Folkman)에 의해 제창되었다. 이 이론은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스트레스관련 이론 중 하나다. 스트레스인지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란 한 개인과 그 개인의 자원을 흡사시키거나 초과하여 그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스트레스인지이론을 통해 스트레스 발생과정을 일련의 인과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스트레스는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라는 선행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개인적 요인의 경우, 신념이나 커미트먼트(commitment)와 같은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지하는 스트레스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후 그 상황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스트레스 인지)에 따라 대처행동을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심신(스트레스 반응)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된다. 즉 이 이론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과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족학 등에서 스트레스를 주제로 다룬 연구들은 다수 진행되어 왔으나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가족 남편을 대상으로 하여 이 이론을 검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남편의 삶의 질에 대해 스트레스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데 이 이론을 활용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삶의 질

삶의 질은 그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여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된 정의를 찾기는 어렵다(김연희 외 2014). UN(1997)에서는 삶의 질을 소득이나 생산과 같은 정량적 측정보다는 사회지표에 의해 측정된 인류복지의 개념으로 정의하는가 하면 WHO Quality of Life Groups(1995)에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 및 가치 체계와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및 관심에 관련된 삶 속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개인적 인식으로써 삶의 질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개념화가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진행된 삶의 질 연구들을 바탕으로 김구(2003)는 삶의 질을 객관적 측면, 주관적 측면, 통합적 측면에서 재정리하였다. 첫째, 객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이란 인간의 만족스러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으로 객관적, 물리적 삶의 상태가 인간의 주관적, 심리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과성을 전제로 한다. 둘째, 주관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이란 개인의 삶이 자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내면적인 기대수준을 충족시킨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인생에 있어서 규범적 가치와 삶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뜻한다. 셋째, 통합적 측면에서의 삶의 질이란 만족과 행복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물질적 측면과 더불어 복지 또는 정신건강 요소에 의해서도 측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외형적 생활 상태를 비롯하여 내면적인 심리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삶의 질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통해 또는 통합된 형태의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연구목적과 측정대상자가 어떠한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김구 2003). 한편 맥도웰 외(McDowell et al 1987)에 의하면 삶의 질을 건강관련 삶의 질(HR-QOL)로 규정하며 기능적 상태, 정신적 안녕, 사회적 안녕, 건강에 대한 인지, 질병과 치료 관련 증상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의학적 가치관에서 점차 대상자의 질적인 삶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김수옥 외 2000).

스트레스인지이론에 따르면 삶의 질은 개인이 직면한 스트레스 상태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로 설명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의 삶의 질을 개인이 평가하는 주관적 지표를 통해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관계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성도경 외 2010; 김연희 외 2014).

3.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가정은 개인과 사회의 중간 단위이며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형성된 가족관계는 이후 그들의 삶의 질에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교육인적자원부 1998; 이은하 외 2012 재인용).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정과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서 한국사회에 적응이 필요한 이주여성보다 한국인 남편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생활에 대해 한국인 남편이 인식하고 있는 개인적 가치관은 자신의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및 가족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된다.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가치관과 관련하여 결혼생활 장면에서 있어서는 결혼생활 커밋먼트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결혼생활을 지속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결혼생활 커밋먼트는 결혼생활에 대해 개인이 지닌 가치관 또는 의지로서 대변된다. 이러한 결혼생활 커밋먼트는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나 충성을 기초로 한 정서적 커밋먼트, 결혼지속에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는 규범적 커밋먼트, 가족의 반대나 자녀의 존재, 경제적 어려움 등 외적요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기 주저하게 되는 지속적 커밋먼트라는 3요인으로 구성된다(Adams 외 1997; Johnson 외 1999; 정영조 외 2013).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결혼생활 커밋먼트를 측정한 정영조 외(2013)는 결혼생활 커밋먼트를 태도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이들 커밋먼트가 가족형성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커밋먼트의 세 요인 중 정서적 커밋먼트만이 직접적으로 또는 부부동반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족형성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의 스트레스와 나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조건으로서 정영조 외(2013)의 연구에서 검토한 결혼생활 커밋먼트를 가지고 파악하고자 한다.

2) 배우자 스트레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 가정을 형성하게 되는 국제결혼의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결혼이주여성 못지않게 한국인 남편 또한 결혼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초점을 맞춰 한국에서 겪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 문제를 다뤘었다(이경순 외 2012; 이지현 외 2013). 물론 외국인 여성들이 낯선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분명하나 국제결혼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국인 남편도 겪게 되는 환경적 변화과정에 적응을 요구받는다든 점에서 여러 갈등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김계하 외 2013). 한국인 남편의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다지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최근 발표된 몇 편의 논문을 통해 남편의 스트레스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윤정수 외(尹靖水 외 2011)는 한국인 남편과 대만인 남편의 스트레스를 배우자

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의 3요인으로 구성하여 각 요인별로 정신적 건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서 배우자 스트레스가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지선 외(2012)는 이들 스트레스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교류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춰 배우자와의 관계 및 배우자의 학대행위, 배우자의 능력 및 성격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을 설정하여 스트레스 강도를 파악한 후 이러한 스트레스가 배우자에게 가하는 학대행위로 연결되는가를 검증하였다. 김계하 외(2013)의 연구에서는 외국인 부인과 생활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남편 자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한편 무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본다면 한국인 남편이 가족형성을 위해 맺게 되는 일차적 관계인 외국인 부인에게서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남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국 2개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9개소를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 885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 중 한 명이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책임자에게 조사에 대한 설명을 하여 이에 동의한 센터에 의뢰하였다. 설문배포 및 회수는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의뢰 시 본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센터에서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0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었다. 각 조사책임자는 조사대상자에게 개인정보보호 및 연구를 위해서만 데이터를 사용할 것임을 약속하고, 이에 동의한 조사대상자에 한해 설문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결과 495명(회수율 55.9%)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문항은 대상자의 기본적 속성(남편과 부인의 연령, 결혼경로, 최종학력, 직업, 월수입), 결혼생활 커밋먼트,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삶의 질로 하였다.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는 결혼생활을 지속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으로 결혼생활에 대해 개인이 지닌 가치관 또는 의지를 의미한다.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는 크게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내가 힘들 때에는 곁에서 지탱해 주고 싶다’, ‘아내는 나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이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된 ‘정서적 커미트먼트’, ‘가족의 분열은 피하고 싶다’, ‘이혼은 부끄러운 것이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된 ‘규범적 커미트먼트’, ‘혼자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된 ‘지속적 커미트먼트’ 3영역 총 10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방식의 4점 척도(0점: 그렇지 않다에서 3점: 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이미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의 샘플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정영조 외 2013).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 부인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박지선 외(2012)가 개발한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내의 언행을 이해할 수 없어 속상하다’, ‘아내가 내 고민을 들어주지 않아 속상하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피곤하다’, ‘아내가 잔소리가 많아 머리가 아프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된 ‘아내의 학대행동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화가 난다’, ‘아내가 밥을 챙겨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된 ‘아내의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가 상냥하지 않아 기분 나쁘다’, ‘아내가 나의 부모를 배려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된 ‘아내의 성격에 대한 스트레스’의 4가지 하위영역총 16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방식의 4점 척도(0점: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에서 3점: 매우 그렇게 느낀다)로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이미 다문화가족의 남편 샘플을 통해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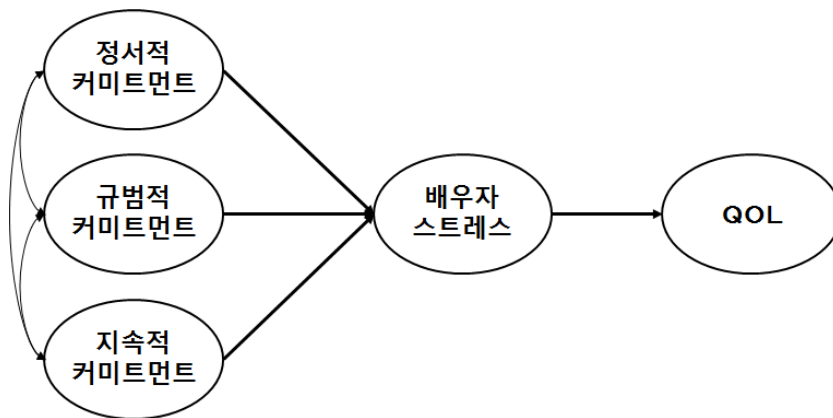
‘삶의 질’은 측정에는 나카지마 가즈오 외(中嶋和夫 외 2003)가 개발하고, 기리노 마사후미 외(桐野匡史 외 2011)가 개정판으로 작성한 ‘개정판 건강관련QOL만족도’ 측정척도가 사용되었다. 건강관련QOL만족도란 개인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중시하는 것으로 건강과 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방식의 3점 척도(0점:아니다, 1점:어느 쪽도 아니다 2점: 그렇다)로 되어 있다. 나카지마 가즈오(中嶋和夫) 외(2003)가 개발한 ‘건강관련 QOL만족도’ 척도와 기리노 마사후미(桐野匡史) 외(2011)의 ‘개정판 건강관련 QOL만족도’ 척도는 이미 대규모 샘플을 통해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라자루스 외(Lazarus 외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을 바탕으로 결혼생활 커미트먼트가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결혼생활에 대한 몰입 내지는 헌신 정도가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가정한 모형이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가 낮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배우자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은 저하된다.



〈그림 1〉 연구모형

4. 분석방법

통계분석에는 SPSS20.0과 AMOS20.0을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통계처리를 하였다.

첫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술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 결혼생활 커미트먼트(3요인 사교모형),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4요인 2차요인모형), 삶의 질(3요인 2차요인모형) 각각의 요인구조모형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요인구조 측면에서 본 구성개념 타당성의 교차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성은 내적정합성 측면에서 본 신뢰성을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로 검토하였다. 더불어 모형의 적합도가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에 한해 모형의 수정지수를 참고로 수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각 측정척도의 평균값, 표준편차, 범위를 산출하였다. 넷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로 검토하였다. 다섯째,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삶의 질의 관련성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및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앞서 언급한 각 측정척도의 요인구조모형 및 인과관계 모형에 대한 적합성은 적합도 판단지표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CFI는 0.90이상, RMSEA는 0.08미만이면 적절한 모형으로 판단한다(田部井明美 2001).

분석에는 회수된 495명의 데이터 중 연구모형 검증에 필요한 모든 문항에 응답한 247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응답분포는 <표 1>과 같다. 남편의 연령은 평균 44.0세(표준편차 6.4, 범위 26~65세), 부인의 연령은 평균 28.7세(표준편차 6.4, 범위 19~58세)였다. 결혼경로는 '중개업자 소개'가 155명(62.8%)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고, '친구 소개'가 46명(18.6%), '가족 및 친척 소개'가 32명(13.0%), '종교단체 소개'가 14명(5.7%)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26명(51.0%)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학교 졸업'이 55명(22.3%), '2년제 대학 졸업'이 29명(1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월수입은 '100 - 200만원 미만'이 121명(49.0%)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다음으로 '200 - 300만원 미만'이 53명(21.5%), '100만원 미만'이 45명(18.2%)이었다. 부인의 국적은 '베트남'이 104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필리핀'이 62명(26.8%), '중화인민공화국'이 44명(19.0%), '캄보디아'가 12명(5.2%), '태국'이 6명(2.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의 직업에 대해서는 응답빈도가 높은 상위 3순위를

보면, ‘농림축산업’이 84명(34.0%), ‘회사원’이 47명(19.0%), ‘단순노동’이 27명(10.9%)순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응답분포 (n=247)

(단위 : 명(%))

연령	남편 부인	평균 44.0세 평균 28.7세	표준편차 6.4 표준편차 6.4	범위 26~65세 범위 19~58세		
결혼 경로	중개업자 소개	155	(62.8)	부인의 국적	베트남	104 (42.1)
	친구 소개	46	(18.6)		중국	62 (26.8)
	가족 및 친척 소개	32	(13.0)		필리핀	44 (19.0)
	종교단체 소개	14	(5.7)		캄보디아	12 (5.2)
최종 학력	미취학	1	(0.4)	태국	6	(2.6)
	초등학교 졸업	16	(6.5)		기타 (몽골, 인도네시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19 (8.2)
	중학교 졸업	55	(22.3)			
	고등학교 졸업	126	(51.0)	직업	농림축산업	84 (34.0)
	대학(2,3년제) 졸업	29	(11.7)		수산업	3 (1.2)
	대학교(4년제) 졸업	16	(6.5)		단순노동	27 (10.9)
	대학원 졸업	4	(1.6)		생산업	25 (10.1)
월수입	수입 없음	8	(3.2)		판매업	12 (4.9)
	100만원 미만	45	(18.2)		회사원	47 (19.0)
	100-200만원 미만	121	(49.0)		공무원	11 (4.5)
	200-300만원 미만	53	(21.5)		전문직	4 (1.6)
	300-400만원 미만	16	(6.5)		기타(무직, 학생 등)	34 (13.8)
	400만원 이상	4	(1.6)			

2. 주요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인 및 평균치 분석 결과

주요변수인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삶의 질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확인 및 평균값을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결혼생활 커미트먼트를 3요인 사교모형으로 설정한 후 이 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df)=72.909(31)$, CFI= 0.975,

RMSEA=0.074로 적절한 모형이라고 판단되었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정서적 커미트먼트=0.939, 규범적 커미트먼트=0.814, 지속적 커미트먼트=0.768이었다.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의 합계 득점을 산출한 결과, 정서적 커미트먼트가 평균 9.1점(표준편차 2.9, 범위 1~12점), 규범적 커미트먼트가 평균 5.2점(표준편차 3.0, 범위 0~9점), 지속적 커미트먼트가 평균 5.1점(표준편차 2.5, 범위 0~9점)이었다.

다음으로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4요인 2차요인 모형으로 설정한 후 이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chi^2(df)=285.357(100)$, CFI=0.934, RMSEA=0.087로 통계학적인 허용기준을 충족시켰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전체가 0.948이었고,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0.876, '아내의 학대행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0.887, '아내의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0.857, '아내의 성격에 대한 스트레스'가 0.812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16문항에 대한 합계 득점을 산출한 결과, 평균 7.1점(표준편차 7.7, 범위 0~48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 'QOL'을 3요인 2차요인 모형으로 설정한 후 이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chi^2(df)=114.497(49)$, CFI=0.968, RMSEA=0.074로 통계학적인 허용기준을 충족시켰다.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는 전체가 0.930이었다. QOL 12문항에 대한 합계득점은 평균 16.5점(표준편차 7.6, 범위 0~24점)이었다.

〈표 2〉 주요변수들의 타당도, 신뢰도, 평균치 분석 결과 (n=247)

변수명	타당도			신뢰도	평균±표준편차 (범위)
	$\chi^2(df)$	CFI	RMSEA	Cronbach's α 신뢰성 계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72.909 (31)	0.975	0.074	정서=0.939 규범=0.814 지속=0.768	정서=9.1점±2.9(1~12점) 규범=5.2점±3.0(0~9점) 지속=5.1점±2.5(0~9점)
배우자 스트레스	285.357 (100)	0.934	0.087	전체=0.948 관계=0.876 학대=0.887 능력=0.857 성격=0.812	전체=7.1점±7.7(0~48점) 관계=2.9점±2.8(0~15점) 학대=1.4점±2.0(0~12점) 능력=1.6점±2.1(0~12점) 성격=1.1점±1.7(0~9점)
QOL	114.497 (49)	0.968	0.074	전체=0.930 신체=0.912 정신=0.860 사회=0.863	전체=16.5±7.6(0~24점) 신체=5.1±3.2(0~8점) 정신=5.7±2.7(0~8점) 사회=5.8±2.7(0~8점)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삶의 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3>과 같다. 그 결과, 정서적 커미트먼트는 규범적 커미트먼트와 지속적 커미트먼트, 삶의 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배우자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규범적 커미트먼트는 지속적 커미트먼트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배우자 스트레스와 삶의 질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지속적 커미트먼트는 배우자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삶의 질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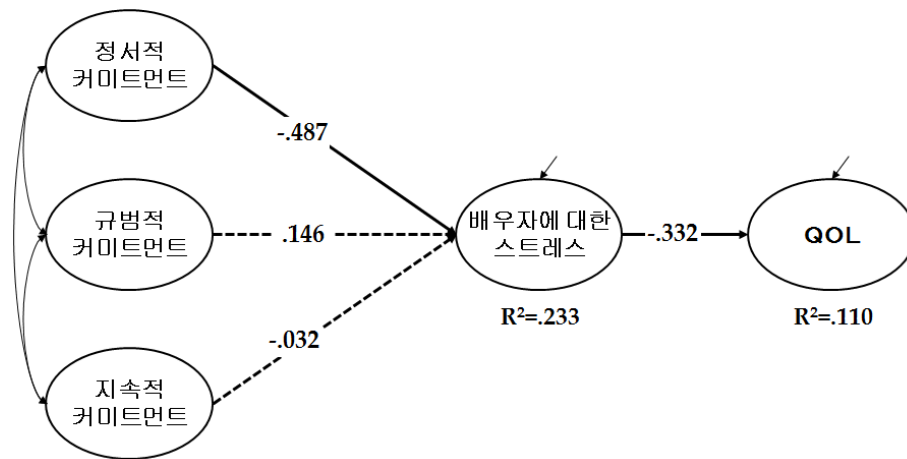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1. 정서적 커미트먼트	1				
2. 규범적 커미트먼트	0.207**	1			
3. 지속적 커미트먼트	0.297***	0.545***	1		
4. 배우자 스트레스	-0.452***	0.023	-0.058	1	
5. 삶의 질	0.185**	0.008	0.034	-0.335***	1

*p<0.05, **p<0.01, ***p<0.001

4. 연구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그림2>와 같다. 먼저 연구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는 $\chi^2(df)=691.162(365)$, CFI=0.935, RMSEA=0.060으로 통계학적인 허용기준을 충족시켰다. 다음으로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3요인 중 정서적 커미트먼트에서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0.48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규범적 커미트먼트와 지속적 커미트먼트는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QOL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332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n=247$ $\chi^2(df)=691.162(365)$ CFI=0.935 RMSEA=0.060

주1) 실선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것이며 점선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은 경로를 뜻한다.
주2) 잠재변수에 대한 오차 및 관측변수에 대해서는 표시를 생략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검증결과 (표준화계수)

V. 고 찰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데이터를 기초로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 QOL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라자루스 외(Lazarus 외 1984)가 제시한 스트레스인지이론을 바탕으로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3요인이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통해 QOL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한 후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이론적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와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중 정서적 커미트먼트만이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에 정적 관련성을 보였고,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는 QOL에 부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애정과 사랑을 중시할수록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결국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함께 살펴본 경우를 찾기가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관계지속의사의 관련성을 살펴본 정영조 외(2013)의 연구결과를 통한 간접적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정서적 커미트먼트가 높을수록 부부동반행동의 빈도를 높이고 나아가 가족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아내와 가족에 대한 애착이 깊을수록 배우자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송지현 외(2010)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 상호 간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은하 외(2012)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하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부는 배우자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잦은 대화를 통한 협의과정을 거치며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즉 정서적 커미트먼트는 애정이 바탕이 되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치관은 상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QOL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배우자를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할수록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尹靖水 외 2012). 부부와 같은 친밀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의 만족 정도에 따라 우울 증상이 완화 또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이경미 외 2004). 또한 우울한 배우자의 욕구와 부정적 진술 등으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 상태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더욱 우울해지게 된다(Coyne 외 1987; Barnett 외 1988). 연구대상은 다르지만 노인을 수발하거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돌봄수행자에 대한 연구결과로 확장시켜보면, 수발 또는 양육대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 정도가 우울감을 높이거나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Lawton 외 1991; 채선미 외 1999; 김문정 2009).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가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삶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배우자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의 학대 행위, 배우자의 성격과 능력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문항들은 현장에서 남편 상담 시 스트레스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정서적 커밋먼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남편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부부 간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개업자의 소개를 통한 결혼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박윤지 외(2012)가 지적하고 있듯이 국제결혼의 경우 다양한 배우자 선택과정과 오랜 만남을 통해 상호 호감을 지닌 배우자를 결정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생활 커밋먼트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규범적 커밋먼트와 지속적 커밋먼트는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정영조 외(2013)의 연구에서도 규범적 커밋먼트와 지속적 커밋먼트가 부부동반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본 연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해 부부관계의 기반이 되는 가치관에는 이득과 손실이라는 계산적 측면보다는 애정과 사랑이라는 정서적 측면의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론적으로 볼 때 결혼생활 커밋먼트는 정서적, 규범적, 지속적 커밋먼트라는 하위요소가 상호 관련성을 가지면서 독립적인 형태의 모형을 취한다(Adams 외 1997; Johnson 외 1999). 즉 개인이 가지는 결혼생활에 대한 가치관은 이 세 가지 요소가 혼재하는 상태이기는 하나 다만 어느 커밋먼트 요소를 더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의 검증 결과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로 향하는 경로계수에 있어서 정서적 커밋먼트가 규범적 및 지속적 커밋먼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아내와 가족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의미하는 규범적 커밋먼트와 외적요인으로 인해 이혼의 선택을 제한하는 지속적 커밋먼트에 대한 가치관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으나 정서적 커밋먼트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높게 인식되어진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결혼생활은 부부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결혼생활 중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갈등, 분노, 말다툼 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 심리적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환들, 이를테면 심장병, 당뇨병, 위십이지장 질환, 빈혈, 알레르기성 질환 등을 경험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이러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가족해체로 이어진다(윤황 2009).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이혼율의 증가추세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악화 및 사회적으로 개입해야 할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배우자 간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살펴봤듯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인지하는 부정적 스트레스 감정이나 이러한 감정을 발생시키는 결혼생활 커미트먼트 중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던 낮은 수준의 정서적 커미트먼트는 장기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 이를테면 배우자의 모국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이해를 위한 교육, 배우자와의 관계형성기술 및 의사소통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스트레스 상담 창구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 주로 중개업자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충분한 이해와 파악의 시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김구. 2003. “객관적 지표를 이용한 보성군 ‘삶의 질’ 분석,”『조선대 지역발전연구』 8(2), 91-109.
- 김계하 · 선정주 · 오숙희. 2013. “여성 결혼이민자 남편의 스트레스, 자존감 및 무력감,”『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29-39.
- 김문정. 2009. “손자녀 양육 조모의 생활만족도 구조모형,”『여성건강간호학회지』 15(3), 231-241.
- 김수옥 · 박영주. 2000.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행위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노인간호학회지』 2(1), 59-71.
- 김연희 · 서영준. 2014.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여성학연구』 24(1), 35-62.
- 김혜자.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1), 5-11.
- 박윤지 · 전명희. 2012.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 비교,”『한국간호교육학회지』 18(3), 383-392.
- 박인아 · 윤정수 · 박지선 · 김정숙 · 나카지마 가즈오. 2012.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인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사회과학연구』 51(2), 129-158.
- 박지선 · 정영조 · 김정숙 · 윤정수 · 나카지마 가즈오. 2011.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심리적 학대의 관계,”『제10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 발표집』
- 박태영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일본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부부치료,”『한국가족복지학』 30, 167-196.
- 변화순 · 이미정 · 김혜영 · 황정미 · 이선형. 2008.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도경 · 이지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2(3), 749-772.
- 송지현 · 이태영. 2010. “다문화 가족 부부의 결혼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164 - 192.
- 오승환 · 윤동성. 2006. “노인의 삶의 질 특성에 관한 연구:도시·농촌·어촌지역을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2, 119-147.
- 유은광 · 김혜진 · 김명희.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2(2), 171-180.
- 윤황. 2009. 베트남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 도시-농촌 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 · 최윤경 · 강이현 · 이민수. 2004. “지역사회 기혼여성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가족내 관계 만족 변인 및 갈등대처 방식을 중심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3(2), 229-236.
- 이경순 · 연영란.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고찰,”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7(3), 697-709.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235-249.
- 이은하 · 견주연. 2012.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부부의 자녀, 배우자, 자신에 대한 삶의 탐색,” 『아동학회지』 33(3), 45-62.
- 이지현 · 진수진 · 주현정 · 조연실. 201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부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87-98.
- 이효재. 1984.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 정영조 · 박지선 · 김정숙 · 윤정수 · 나카지마 카즈오. 2013.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밋먼트와 가족관계 지속의사의 관계,” 『민족연구』 55, 148 - 162.
- 채선미 · 강희선 · 이한주 · 신현숙. 1999. “배우자 지지가 미취학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187-195.
- Adams, J. M. and Jones, W. H. 1997. “The conceptualization of marital commitment:

- an integrative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5), 1177 - 1196.
- Barnett, P. A. and Gotlib I. H. 1988.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depression: distinguishing among antecedents, concomitants, and consequences,” *Psychol Bull*, 104, 97-126.
 - Coyne, J. C. Kessler, R. C., Tal, M., Turnbull, J., Wortman, C. B., and Greden, J. 1987. “Living with a depressed person: Burde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 Consult Clin Psychol*, 55, 347-352.
 - Johnson, M. P. Caughlin, J. P., and Huston, T. L. 1999. “The tripartite nature of marital commitment: Personal, moral, and structural reasons to stay marrie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1), 160 - 177.
 - Lawton MP, Moss M, Kleban MH, Glicksman A, Rovine M. (1991). “A two-factor model of caregiving apprais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Journal of Gerontology*, 46(4), 181-189.
 -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cDowell, I. and Newell, C. 1987. *In: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25-133.
 - The WHOQOL Group. 1995.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assessment(WHOQOL): Position paper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41, 1403-1409.
 - 기리노 마사후미(桐野匡史), 박지선(朴志先), 곤도 리에(近藤理恵), 사사이 츠카사(佐々井司), 다카하시 시게사토(高橋重郷), 나카지마 가즈오(中嶋和夫). 2011. “共働き世帯の父親の育児参加と母親の心理的well-beingの関係,”『厚生指標』 58(3), 1-8.
 - 나카지마 가즈오(中嶋和夫), 카가와 코지로(香川幸次郎), 박천만(朴千萬). 2003. “地域住民の健康関連QOLに関する満足度の測定,”『厚生指標』 50(8), 8-15.
 - 윤정수(尹靖水), 百瀬英樹(모모세 히데키), 黒木保博(구로키 야스히로), 中嶋和夫(나

- 카지마 가즈오). 2011. “台湾多文化家族の夫の日常生活に関連したストレス問題,” 『評論社会科学』 97, 41-58.
- 윤정수(尹靖水), 박지선(朴志先). 2013. “第10章 韓国における結婚移住女性とその家族に対する政策”, pp.190-215. 윤정수(尹靖水), 곤도 리에(近藤理恵), 나카지마 가즈오(中嶋和夫), 『グローバル時代における結婚移住女性とその家族の国際比較研究』. 東京: 学術出版会.
- 타베이 아케미(田部井明美). 2001. 『SPSS完全活用法共分散構造分析(Amos)によるアンケート處理』. 東京: 東京図書.

● 투고일: 2015. 1. 1. 심사일: 2015. 1. 19. 게재확정일: 2015. 2. 3.

| Abstract |

The Effects of Marriage Commitment and Marital Stress on QOL in Intermarried Korean Husband

Ji Sun Park, Young Jo Chung, Han Su Ryu
(Woos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lationships among the marriage commitment, marital stress, and QOL for the Intermarried Korean Men. Participants were 885 Korean husband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were us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located in the two area through self-questionnaire survey. Data were collected using the marital commitment scale, marital stress, and QOL scale. We designed the casual model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husband's marriage commitment, marital stress, and QOL. The casual model was examined by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data of 247 subjects who had given answers to all the items out of the total collected data of the 495 subjects was used.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it indices were found to be $\chi^2(df)=691.162(365)$, CFI=0.935, RMSEA=0.060. This is statistically acceptable levels. Second, affective commitment were negatively related marital stress among husband. But moral commitment and continual commitment were no statistical significance. Third, marital stress were negatively related to QOL. These results suggests that the husband's stress management and improving of marital relationship is important.

〈Key words〉 Marriage commitment, Marital stress, Quality of life, Intermarried Korean Husband, Multi-cultural family